

AUTHOR 김삼웅

TITLE 종교개혁의 기수들 중세 암흑을 뚫다

IN 기독교사상

(11. 2009): 178-186

# 종교개혁의 기수들 중세 암흑을 뚫다

김삼웅 전 <서울신문> 주필, 제7대 독립기념관장

## 부패한 교회 농민들 갈취

중세 유럽은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이 결합하거나 따로 군림하면서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흔히 '중세암흑'이란 말이 나올 만큼 암흑시대였다. 여기에 페스트를 비롯하여 각종 역병까지 창궐하여 인구 3분의 1 정도가 사망하고, 기독교력은 이른바 '마녀사냥'을 통해 비판자와 저항세력을 이단으로 몰아 고문하고 화형에 처하였다.

이 시기는 교회와 영주가 권력의 중심에 있어서 타락의 정도는 더 심했다. 농민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전에 교회에 곡물과 야채, 가축의 10분의 1을 바치고, 영주에 그보다 많은 양을 빼앗겨야 했다. 영주에게는 해마다 두 번씩 토지사용료로 생산한 모든 것에 대해 정해진 비율의 양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심한 곳은 절반에 이르기도 했는데,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영주의 땅에서 일정기간 노력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었다. 독일에서는 연 60일, 그것도 농번기에 동원되어 정작 자신의 농사는 망치기 일쑤였다. 영주의 허가 없이는 결혼조차도 못하는 일이 많았고, 또 결혼을 하려면 세금을 바쳐야 했다.

교회의 타락은 극도에 달하여 성직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에 오히려 해독을 끼치고 있다. 성직자들의 대부분이 공공연하게 첩을 두고 있으며, 만약 교회

에서 이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이에 반항하여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들은 폭력까지 사용해서 정의의 수행을 막고 있다. -이사벨라, 1500년 11월 20일.

이 기록이 말해주듯이 가톨릭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극한에 이르렀다. 영주들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해야 할 교회가 영주들보다 더 가혹하게 수탈하고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 비판자들을 처형하였다.

쌓이고 쌓인 분노는 1524년 드디어 독일에서 피비린내 나는 농민항쟁으로 폭발했다. 그러나 결과는 무장한 군대에 의해 반항하는 농민 약 10만 명이 살해되고 5만 명이 부상당하거나 집과 재산을 빼앗겼다. 이로 인해 마을이 파괴되고 논밭은 황폐되었으며 기근과 피폐, 역병이 다시 농촌을 덮쳤다. 거리에는 거지가 들끓고 노상강도가 우글거렸다.

공포가 도처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업화(業火)였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가 상실한 천국에 대한 죄 많은 인간의 짓값으로 인식하였다. 독일의 농민항쟁 이후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는 형벌이 더욱 가혹하게 집행되었다. 반항자는 끓는 솥 속에 산채로 처넣어지거나, 목에 밧줄을 묶어 시중으로 끌고 다닌 끝에 갈기갈기 찢어 죽었다. 이단자에게는 말뚝에 묶어 화형을 시키거나 마소에 팔다리를 묶어 사지를 찢는 참혹한 형벌을 가했다.

압제에는 저항이 따른다. 아무리 캄캄한 암흑시대라 해도 누군가는 이성의 눈을 뜨고 저항하기 마련이다. 어느 시대나 암흑과 몽매를 일깨운 사람들은 있다. 예언자적 사명이 있는 종교인들이 그 역할을 맡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가장 먼저 이성의 눈을 뜬 사람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 신학교수인 존 위클리프(1324-1384)였다. 그는 1374년 국왕의 사절단으로 브뤼지에서 교황 측과 교섭을 하고 귀국하여 널리 선교활동을 벌였다. 많은 저서를 펴내고 한때 국왕의 비호를 받았다. 그러나 교황에 대한 납세를 반대하고 교회가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교회와는 척을 지고 그 대신 농민의 지지를 받았다.

그는 『지배론』이란 저서를 통해 "교회의 모든 지배는 은혜에 의해서만 있을 수 있으며, 은혜가 없는 기구나 인간은 아무런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1378년 영국 교회에 대한 로마 교황과 대주교의 지배는 필요 없는 것임

로 영국의 교회는 영국국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성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많은 농민이 읽도록 하고 농촌에 가난한 성직자를 보내어 민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등, 교회개혁과 농민계몽운동에도 헌신하였다.

위트 타일러에서 일어난 농민반란이 위클리프의 설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학과 귀족들로부터 지지를 잃고 은퇴하여 실의 속에 지내다가, 1382년 그의 저서에서 뽑아낸 24개조가 이단이며 오류라고 판정받았으나 간신히 처벌은 면하였다. 그러나 30년 뒤 안 후스에 의해 그의 개혁정신은 이어지고, 1세기 뒤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다.

#### 안 후스의 저항과 종교개혁운동

안 후스(1369-1415)는 보헤미아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프라하대학에 들어가서 석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다. 그는 대학에서 알찬 강의를 하고 신부직을 받으면서 대학의 학장으로 승진하였다. 훌륭한 종교문제의 논문으로 지식인들의 환영을 받는 등 34세에 이미 자수성가한 입지적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깨어 있는 영혼의 소유자는 안주하지 않는 법, 후스는 베들레헴 성당에서 라틴어로 기도드리지 않고 보헤미아의 모국어로 기도를 올렸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언어로 하느님께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실천하였다. 사람들이 후스의 성당으로 몰려왔다. 일종의 종교적인 독립선언이었다. 그는 로마교황청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왜 자신들이 수천마일 떨어진 로마교황청에 돈을 바쳐야 하는지 묻고, 로마의 고위 성직자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그 무렵 후스는 위클리프의 저술을 5권이나 직접 복사하여 읽고 크게 감명 받았다. 그의 ‘이단성’에 감탄하면서 부패, 타락한 성직자들에게 세속의 부귀와 권력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들과 언쟁하는 일이 잦았다. 지배세력은 어디서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후스에게 위협이 닥쳐왔다. 프라하의 대주교가 대학에 있는 위클리프의 저작물을 모두 소각할 것을 명령했다. 이것은 후스에게 위협경고였다. 참을 수가 없었다.

대주교의 전횡에 반대하는 단체의 조직에 나섰다. 그리고 소리 높여 외쳤다.

“나의 친구들이여, 불로서 진리를 태울 수 없다. 숨을 쉬지 않고 남에게 해를 주

지 않는 물체에 대해서 성을 내는 것은 소인의 짓이다. 오늘 소각되는 책들은 전 국가의 손해이다.”

후스의 강연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단체에 가입했다. 보헤미아의 왕과 백작도 참가했다. 종교자유와 민족주의가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로마교황청에서 보헤미아 왕가를 통해 압력과 박해를 시작했다. 제자 3명이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위협을 느낀 후스는 프라하를 떠나 시골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농민들을 상대로 설교하면서 교황청의 처사를 비난했다.

교황청은 후스에게 파문이라는 극형을 내렸다. 중세에 교회의 파문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 비석을 세우는 ‘교회의 눈이 먼 지도자들’을 비난했다. “당신들은 죽은 자를 예배하면서 산 자를 핍박한다.”고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교황청은 후스에게 파문에 이어 스위스의 도시 콘스탄스에서 열리는 교회평의회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주위에서 모두 말렸지만 후스는 재판정을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설파하는 장소로 삼고자 먼 길을 떠났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폭력이었다. 그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 성경을 포함하여 모든 독서를 금지 당하였다.

지배자들은 후스를 시내에 있는 감옥에 투옥하면 언제 시민들이 탈옥을 시킬지 모르고, 또 그들로부터 환심을 사게 된다는 이유로 먼 곳의 호숫가에 있는 도미니크 수도원의 감옥에 처넣었다. 그리고 심한 고문을 가했다. “나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가진 문제점은 그들이 자랑하는 신앙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사실이다.”라고 후스는 심경을 밝혔다. 곧 재판이 시작되었다.

- 당신은 당국의 권위를 무시했다.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하느님의 권위를 가르치느냐?
- 나의 양심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친다.
- 그러나 수백 명의 훌륭한 박사들이 너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말한다. 너는 너의 잘못을 고쳐 줄 수 있는 그들의 권위를 부정하는가?
- 나는 하느님과 나의 양심에 호소한다. 당신들의 숫자가 더 많을지라도 나는 내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더욱 중요시 한다.

다음에는 시吉斯문트 황제가 직접 심문에 나섰다. 황제는 “나는 너에게 친절한 기회를 주었다. 의회의 명령에 복종해라. 너의 가르침의 잘못을 고백하면 내가 가벼운 벌을 받고 풀려나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나의 충고를 거역하면, 그들이 어떻게 대할 지 각오해라.” 황제의 말이 끝나자 많은 고위 관리들이 ‘전향서’에 서명하면 부귀영화를 보장하겠다고 서류를 내밀었다. 묵묵히 지켜보던 후스의 한 마디, “가장 영광스러운 주 예수께 나를 맡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지배자들은 이 하느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를 “참으로 실제적이고 공개적인 이단,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위클리프의 제자”라고 정죄하여 처형하기로 결정했다.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단자’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들은 옷을 벗기고 머리를 십자가형으로 식발한 다음 악마 그림의 종이 모자를 머리에 씌웠다. 머리에는 “이단자들의 주모자”라고 새겼다. 얼마 뒤 장작더미에서 세차게 불길이 타올랐다. 후스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다.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은 이것보다 더 무겁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후스라는 말은 거위의 뜻이다. 1415년 그가 처형당할 때 “만약 당신들이 지금 거위를 불태운다면, 백년 뒤에 당신들이 해칠 수도 구이를 할 수도 없는 백조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과연 거의 100년 뒤 루터가 나타나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 루터, 이상과 맞서 싸우다

위클리프와 후스가 흘린 피는 헛되지 않았다. 의롭게 흘린 피는 헛되지 않는다. “먹으로 쓴 거짓말은 피로 쓴 사실을 감출 수 없다.” (루신, 『꽃없는 장미』)

마르틴 루터(1483-1546)는 후스가 화형당한 지 63년 뒤에 독일 작센의 광산촌에서 출생했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악령이 날뛰는 칙칙한 중세의 세계가 때마침 전환기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중세 후기가 서서히 종언을 고하려는 어스름 빛 속에서 새 정신이 싹터오고 있었다.

마르틴 루터가 태어났을 때 유럽은 중세 후기의 동면상태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도시는 상업 활동으로 활기를 되찾고 광산에는 기계가 웅웅거리고 있었다. 인쇄기가 발명되고 종이와 제조되었다. 읽기와 쓰기도 이미 학자들의 독점은 아니었다. 독일의 대학들은 세포가 분열하듯이 나날이 증가하였다. 이미 알프스 너머의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 운동이 사람들의 관심을 약속된 천국의 낙원으로부터 지상생활의 기쁨으로 돌려놓고 있었다. 포르투갈에서는 방랑의 제노바 출신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서쪽으로 횡단하여 아시아의 부(富)에 도달하려는 항해계획을 의심 많은 궁정에 제출, 원조를 얻어내려고 인간힘을 쓰고 있었다. 1,000년 이상이나 기독교의 동방 보루였던 콘스탄티노플은 1,453년에 터키인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이 무렵에 성장한 루터는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률학을 공부하였으나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 신학을 배우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교수가 되었다. 그의 가톨릭 교의(敎義)에 대한 의문은 수도원 생활 중에 싹트고, 공부로 방문한 로마에서 교회의 허상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서 저항정신으로 자리 잡았다. 가톨릭의 본부인 로마가톨릭교회의 타락상을 목격한 것이다. 그리하여 “로마는 그림으로 장식된 창녀이며 돈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에게 매력을 파는 창녀”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로마교황청은 죄를 범한 사람들의 형벌을 면죄하여 준다는 면죄부 또는 속죄부라고 하는 부표(符表)를 팔아 엄청난 재력을 축적하고 있었다. 로마교황청에서는 원래부터 성지참배 혹은 종교적 목적 때문에 헌금을 받고 죄를 사(赦)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십자군 시대에도 종군자나 헌금자는 면죄된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얻은 신자들의 헌금은 로마교황청의 중요한 재원이 되었다. 1476년 교황 식스투스 4세는 죽어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속죄부까지 만들어 판매한 적이 있었고, 레오 10세는 세입의 부족을 면죄부의 판매로서 보충하려는 폐풍을 보이고 있었다. 루터가 사는 독일에서는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히트가 그 판매를 담당하고, 도미니쿠스 교단의 수도사들을 동원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루터의 고민은 깊어져갔다. 가톨릭의 개혁문제와 자신의 구원문제 사이에서 방황하고 고민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갈망하던 회답의 열쇠를 로마서 속에서 발견했다. 그것은 단 한마디였다. ‘정의’와 ‘의’를 뜻하는 말 즉 ‘우스티티아(justitia)’가, 그 자체가 해결로 인도하는 열쇠였다.

루터는 연옥에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영집의 징벌을 신의 의(義)와 관련시켜 생각해 왔었다. 연구 활동 중 성 바울의 한 구절 “올바른 자는 믿음으로 산다”에 부닥쳤을 때 불현듯 그 말이 지닌 새로운 뜻을 깨달았다. 신의 의(義)란 신의 은혜이며, 은혜로 하여 올바른 사람은 길이 산다. 다시 말해 신의 정의라는 것은 징벌을 내린

다는 섭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신의 자비에 기초하고 있다는 믿음이었다. “신은 줄 뿐이며 팔든가 사지를 앓는다. 따라서 신의 은총은 돈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종교개혁 불씨 95개조의 화살**

루터가 가톨릭 신앙의 믿음을 ‘정의’라고 인식하면서 회심(回心)의 칼을 갈고 있을 때에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의 면죄부를 또 다시 판매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많은 비텐베르크 사람들이 사면장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물을 들고 국경을 넘었다. 독일의 재화가 까닭 없이 로마교황청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루터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당시는 신문 같은 것이 없었으므로 학자들은 공적인 장소에서 자기의 주장을 공표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다. 비텐베르크에서는 성내에 있는 가톨릭교회당의 문위에 못 박혀 있는 게시판이 그러한 의견을 발표하는 장소였다. 루터는 자신의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비롯하여 가톨릭개혁을 적시하는 95개의 논제를 정리하여 이곳에 부착하였다.

얀 후스가 화형당한 지 102년이 지난 1517년 10월 31일의 일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고발하는 저항운동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의 거대한 폭풍우를 몰고 오는 태풍의 눈이 되었다. 루터가 “진리에 대한 사랑과 이를 명백히 할 목적”으로 쓴 95개 조항의 몇 부분은 다음과 같다.

- △ 교황은 자신에게 통상적으로 허용된 것 이외에 다른 죄를 용서할 수 없으며, 용서해도 안 된다.(제5조)
- △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게 하는 더 높은 병폐인 교황의 사면권은 위험하다.(제49조)
- △ 참으로 학식 있는 신학자라 하더라도 속죄의 안이한 것과 통회의 진리성을 동시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것이다.(제39조)
- △ 사실 참다운 통회라는 것은 고난을 찾고 그것을 사랑한다. 그러나 속죄는 고난을 풀어주고 예외를 놓고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멀리하여 주고 있다.(제40조)
- △ 오늘날 시골의 졸부들이 악탈하는 것보다 더 악탈하게 교황은 악탈을 자행하

고 있다. 교황은 가난한 신도들의 돈을 우려내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정당한 돈으로 성 베드로성당을 건축해야 하지 않겠는가.(제86조)

△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 평화! 라 하는 모든 거짓 예언자들은 없어져라. 거기에는 평화가 없는 것이다.(제92조)

루터가 제기한 95개조의 핵심은 “참으로 죄를 회개한 자라면 자기의 죄에 대한 벌을 받는데 꾸념을 늘어놓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처럼 기꺼이 벌을 받을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교황이 면죄(免罪)를 판매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 어째서 기독교의 자비의 이름으로 당장 연옥을 비워버리지 않는가, 교황은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어째서 자기 돈으로 성 베드로의 바실리카 회관을 세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려 하는가.” 라는 날카로운 내용에 있었다.

루터가 쓴 이 같은 화살은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내세우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흑세무민해 온 성직자들의 급소를 정통으로 찔렀다. 그리고 피땀 어린 노동의 대가로 면죄부를 사온 사람들과, 돈이 없어서 이를 구입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방의 복음이 되었다. 95개조의 공개장은 곧 사본이 만들어져 이웃 마을에 퍼지고, 인쇄업자의 손에 들어가 대량 인쇄되어 전국으로 퍼졌고, 두 달 뒤에는 전 유럽에 퍼졌다. 마침내 로마교황청에도 들어갔다.

루터의 ‘종교개혁안’ 이 삼시간에 전 유럽에 배포될 수 있었던 것은, 구텐베르크가 1434년 경 활자인쇄기를 만들고, 1450년경 독일 미인쯔에서 인쇄소를 설립하면서 전 유럽에 인쇄기가 보급된 것이 큰 요인이 되었다.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를 바꾼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을 든 것처럼, 금속활자는 발명한 인쇄기의 보급을 가져오고, 루터의 종교개혁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 이전만 해도 성경은 고위 성직자나 소수의 부자들만 소유하던 것이, 인쇄업의 발달로 대량인쇄가 가능해지면서 일반 신도들도 성경을 갖게 되고, 그만큼 성경의 보급은 가톨릭교회의 문제점을 일반화 하게 되었다.

교황으로부터 파문의 교서가 날아왔다. 로마 교황청은 루터의 견해를 41개항으로 정죄하고, 60일간의 근신을 명하는 파문교서였다. 루터는 공개적으로 파문교서의 사본과 교회법전들을 불태우면서, 거둬 신앙의 자유를 천명했다. 루터의 저항을 받은 교황청은 카에타 추기경을 보내어 루터가 스스로 주장을 철회하도록 종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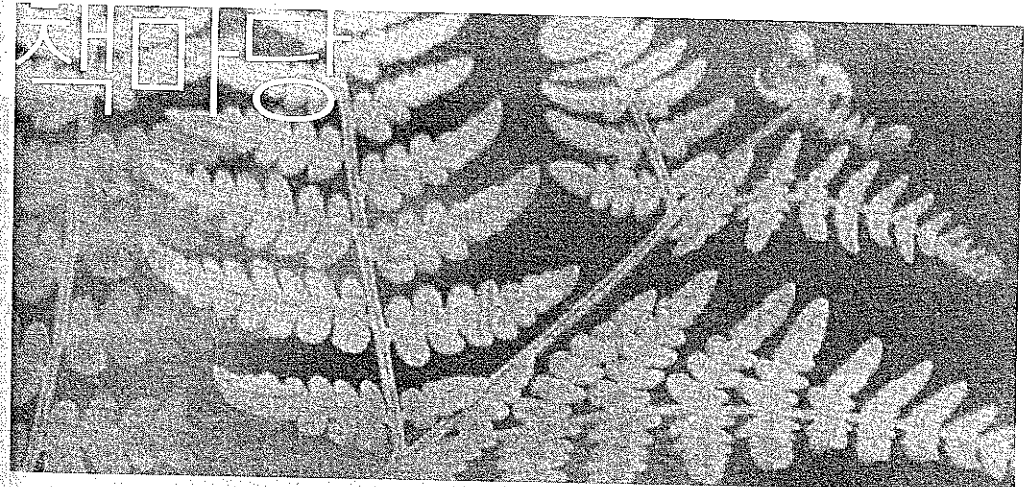
였다. 그러나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은 신앙에 의해 죄를 보상할 수 있을 뿐, 결코 사면장 구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루터는 또 정통파 가톨릭 이론가 에크와 가진 토론에서 “100년 전 콘스탄츠의 종교회의가 안 후스를 이단으로 판정한 것은 과오이며, 그의 사상 속에는 완전히 기독교적인 것이 많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로마교황청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는 도전이었다. 새로 독일의 황제가 된 카알 5세는 1520년 6월 루터를 파문하고, 무법자로 낙인 찍어 공민권을 박탈하였다.

교황은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었다. 루터를 보름스 의회에 소환하여 이단적인 주장을 철회하면 용서하겠다는 ‘관용’을 제의하였다. 루터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루터는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나는 성서와 명확한 근거에 의해 승복당하지 않는 한 양심을 거역하여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아무 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신이여, 나를 구하소서.”

한 달 뒤 황제는 루터의 공민권을 박탈하는 ‘보름스의 칙령’을 공포하고, 그를 외딴 고성으로 추방했다. 루터가 온거 중에 신약성서를 번역하여 외롭게 지내고 있을 때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의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쳤다. 그를 화형에 처하지 않은 것은 시대가 그만큼 변했기 때문이었다. 223

김삼웅! 남은 <대한매일신보(현 서울신문)> 주필을 거쳐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문화론을 가르쳤으며,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의원, 백범학술원 운영위원 등을 거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파재산환수위원회 자문위원, 친일파 인명사전 편찬부원장 등을 맡아 바른 역사 찾기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현대사 바로잡기』, 『겨레유산 이야기』, 『약산 김봉원 평전』, 『녹두 전봉준 평전』, 『만해 한용운 평전』, 『백범 김구 평전』, 『단재 신채호 평전』, 『안중근 평전』 외에 다수의 책이 있다.



188	김기석	기도와 저항과 공동체
198	오승성	신학적 담론, '역사로부터 읽기'
204	김성재	탈출의 자유공동체를 꿈꾸는 떠돌이 목자

AUTHOR 박경수

TITLE 깔뱅의 사상과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

IN 기독교사상  
(5. 2009): 58-68

## 갈뱅의 사상과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



박경수\_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갈뱅과 한국교회

제네바의 교회 개혁자요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장 갈뱅(Jean Calvin, 1509-1564) 탄생 50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그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기독교사상>에서도 갈뱅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여 그가 남긴 유산과 영향력을 검토하는 특집을 마련한 것에 대해 갈뱅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갈뱅을 제대로 기념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정확하게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와 더불어 그의 사상과 실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과 도움을 주는지 숙고해 보는 작업 또한 필히 수반되어야 한다. 필자는 갈뱅의 사상이라는 거울에 한국교회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그에 게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반성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 위기의 한국 개신교회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11월 1일 현재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추락을 단지 이미지 형성의 실패로 돌리기보다는, 그동안 한국교회 내부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역할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약 4,700만 명의 한국인 중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는 2,497만 명(53.1%)에 달했다. 이 중 불교 인구가 1,072만 명(22.8%)으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 861만 명(18.3%), 천주교 514만 명(10.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일부 보수 개신교 교단들이 개신교 신자를 1,200~1,300만 명이라고 밝힌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수치이며, 개신교인의 수가 10년 전인 1995년의 통계청 조사 결과(876만 명, 19.7%)보다 오히려 14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게다가 불교는 10년 전보다 40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고, 특히 천주교는 219만 명이나 증가함으로써 무려 74.4%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한국 개신교회의 위기라고 진단할 만한 상황이다.

1998년과 2004년 연속적으로 한국 갤럽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신교는 타 종교에 비해서 사회적 공신력이 매우 낮고 그 위상도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0월에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는 18.0%로 천주교(35.2%)와 불교(31.1%)에 한참 뒤처진다. 호감도 면에서도 개신교는 20.6%로 불교(31.5%)나 천주교(29.8%)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뢰도뿐만 아니라 호감도도 낮다는 것은 앞으로 개신교회의 신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인구가 그만큼 적다는 뜻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사회적 신뢰도와 호감도가 낮아진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다. 혹자는 한국교회가 사회 속에서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 비해 언론에 적극 홍보를 하지 못하여 좋은 이미지 형성에 실패했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추락을 단지 이미지 형성의 실패로 돌리기보다는, 그동안 한국교회 내부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역할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자신들만의 울타리에 갇혀서 타인과 사회의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역사의 변화에 무심하지는 않았는지, 헌금의 사용과 재정의 운용은 투명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불어 사는 공동체와 공공의 유익을 위해 충분히 헌신하고 있는지, 지역 사회의 필요와 복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자면 한국교회의 대(對)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때이다.

### 세상과 소통하라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설명하면서 흔히 “울타리 문화”라는 말을 사용한다.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엄격한 성향을 일컫는다. 이런 현상이 굳이 한국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성향이 농후한 것은 분명하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외국인과의 결혼을 가장 꺼리는 사람들일 것이고 혼혈 아동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배타적인 편견들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살기 버거운 땅이 이 땅일지도 모른다. 이런 울타리 문화가 은연중에 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다.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태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도 무너뜨린 분이다. 그리스도가 분리의 장벽을 허문 소통의 모범이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태생적으로 세상을 위한 공동체이며, 세상을 섬기는 열린 통로이다.

갈뎡은 당시 제네바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영역들이 결코 영적인 문제, 즉 신앙의 차원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제네바 시(市)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갈뎡이 믿는 하나님은 개인의 영혼에만 관여하고 세상의 질서에는 무관심한 그런 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였다. 따라서 세상의 문제들은 곧 영적인 문제였으며 하나님의 관심사였다.

갈뎡이 믿는 하나님은 개인의 영혼에만 관여하고

세상의 질서에는 무관심한 그런 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였다.

따라서 세상의 문제들은 곧 영적인 문제였으며 하나님의 관심사였다

갈뎡에게 있어서 교회와 세상,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제한하고 거부하는 신성모독적인 행위였다. 만일 오늘 한국의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칭찬하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다운 반쪽 신자일 뿐이다.

갈뎡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영적인 표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가깝게 변화될 수 있도록 예언자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그 방편 중 하나가 바로 물질의 소통이라고 생각했다. 갈뎡은 물질의 소통을 위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집사 직분을 새롭게 회복시켰다. 그리고 이들에게 교회의 헌금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겼다. 당시 제네바 교회의 헌금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 사용되었는데, 성직자들의 사례, 교회 수리와 유지를 위한 비용,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외국인들과 가난한 이주민들을 위한 비용으로 구분되었다. 『기독교강요』, IV, 4, 7) 앞의 두 항목이 교회 내의 필요를 위한 것이라면, 뒤의 두 항목은 가난한 자들과 외국에서 온 피난민들을 위한 구제와 사회봉사적인 성격을 띠었다. 이처럼 적어도 교회 헌금의 50%는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갈뎡은 목회자들의 사례와 관련해서도 “목회자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분배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검소함의 본을 보여야만 하는 목회자들이 사치와 방종을 일삼을 정도로 많이 받지 말고 생활에 필요한 정도만 받아야 한다. 만일 부모의 재산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성직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신성모독을 범하는 것이며, 이런 남용은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독교강요』, IV,

6, 4) 이런 갈뱅의 사상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헌금 사용과 목회자들의 사례비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갈뱅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불평등을 사랑의 법칙에 따른 나눔과 소통을 통해 평균케하기를 원하신다. 물질적 나눔을 통한 상호 소통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의 본질적인 측면이다. 특히 갈뱅은 하나님의 재산을 위탁받은 청지기인 부자들의 책임에 대해 매우 강조하였다. 그는 부자들이 가난한 이웃에게 물질을 나누고 순환시키지 않는 행위는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갈뱅에게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사랑의 법칙이 우리에게 나누어주라고 명령하는 것을 이웃에게 소통하기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기꺼이 세상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오늘날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은 소통이 단절되고 먹통이 된 까닭이다. 이제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대형교회와 미자립교회 사이에,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여당과 야당 사이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 지역과 지역 사이에, 세대와 세대 사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도시와 농촌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야만 한다. 한국교회가 먼저 무너진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곳곳에서 동맥경화 현상에 걸려 신음하는 한국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세상과의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일방적인 언어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통할 수 있는 쌍방적인 언어를 개발하고 구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통이야말로 개인과 교회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임을 분명히 드러내 주는 소통의 신학을 확립하고 그와 더불어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제시해야 한다.

**세상을 이롭게 하라**

루터의 종교개혁이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면, 츠빙글리와 갈뱅의 종교개혁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구원받을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하

필자는 최근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흐름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교회의 역할에 잘 부합된다고 믿는다. 첫째는 공공신학에 대한 관심이며, 둘째는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다

였다. 이것이 개혁교회 전통에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사회 윤리가 강조되는 이유이다. 갈뱅 사상의 기본적인 토대들 중 하나는 창조 때부터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다. 인간은 혼자이어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워 주셨던 것이다. 모든 인간은 원래 한 가족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나의 이웃은 사실상 모두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창 2:23)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이웃의 고통은 바로 나의 아픔이며, 세상의 눈물은 곧 나의 슬픔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희로애락(喜怒哀樂)에 결코 무관심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본래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살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 때문에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눈물을 씻기는 것은 곧 교회의 본래적 사명인 것이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공동체여야 한다.

필자는 최근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흐름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교회의 역할에 잘 부합된다고 믿는다. 첫째는 공공신학에 대한 관심이며, 둘째는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다. 이런 공적인 영역들에 대한 관심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개인의 도덕성과 내면적 영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회·경제적 문제들과도 맞닥뜨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실천적인 신앙으로 성숙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공공신학(public theology) 혹은 공적 신학은 20세기 후반에 유럽과 미국에서 등장한 현대적 신학 사조이다. 하지만 그 원리 면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존재했던 신학 사상이라 할 수 있으며, 갈뱅만 하더라도 공공신학의 사상적 단초들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공공신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2008년 11월에는 “공적 신학과 교회

연구소”가 공식적으로 창립되어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그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공공 신학은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과 끊임없이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원리를 가지고 기존 체제를 상대화시키고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사회를 변혁시키는 역동성을 발휘하도록 만들어 준다. 이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 본연의 임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공공신학에 대한 관심은 초기 한국 그리스도교가 감당했던 사회 변혁적인 역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정무역(fair trade)에 대한 관심 또한 중요한 흐름이다. 공정무역 운동은 특별히 제 3세계의 가난한 노동자들의 노동력으로 생산된 상품들의 이윤이 대부분 판매업자나 유통업자에게 돌아가고, 정작 생산자인 노동자들에게는 거의 돌아가는 것이 없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되었다. 갈베는 생산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불같은 분노를 표출하였다. “하루씩 일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의 결과를 착취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행위는 없다. 율법(레 19:13)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밤을 넘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그런 행위는 노동자의 목을 자르는 것과 진배없기 때문이다. ... 가난한 사람의 노동을 강탈하는 자는 말 그대로 그의 피를 빨아먹은 후에 그를 발가벗겨서 내쫓는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보다 더 사악하고 잔인한 행위이다.”(갈베의 예레미야 22:13 주석) 20세기 후반 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의 나라들에서 시작된 공정 무역 운동이 지금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한국에서는 2003년 ‘아름다운 가게’에서 네팔과 방글라데시의 수공예품을 직접 들여와 판매한 것이 시초가 되어, 지금은 두레생활협동조합, YMCA 전국연합, 페어트레이드 코리아, 아이쿱(iCOOP)생협연합회, 한국공정무역연합 등의 조직들이 공정 무역을 통한 윤리적인 소비 운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신학교와 교회에서도 공정 무역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경제로 소개하고 있으며, 공정무역을 알리기 위한 일일 찾집을 열거나 발렌타인데이(Valentine’s Day)에 공정무역 초콜릿을 선물하자는 “착한 초콜릿 주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구조적인 가난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시작되었고, 자연과 환경을 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경제 활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 운동은 분명 성서적이다. 한국교회가 이

16세기 교회 개혁자였던 갈베도 제네바의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에서 피난 온 궁핍한 사람들의 복지 문제와 씨름하였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 종합구빈원(General Hospital)이었다면,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은 프랑스기금(Bourse Francaise)이었다

런 흐름에 적극 참여하여 선도하는 것도 갈베의 사상을 진취적으로 계승하는 일이 될 것이다.

#### 세상을 섬기라

한국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사회적인 신뢰도가 실추된 데에는 교회의 성장 위주 전략이 사회봉사라는 본질적인 사명을 소홀히 다룬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개신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열심히 해야 할 활동을 묻는 질문에서 ‘봉사와 구제’라는 응답이 47.6%로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윤리와 도덕성 회복’이라는 응답이 29.1%로 2위를 차지하였고, ‘환경 및 인권운동,’ ‘교육활동,’ ‘문화 및 예술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근래 들어 교회 안에서 사회 봉사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으로 여기는 교회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의 목회 패러다임이 성장에서 섬김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이다. 이 점에서도 갈베의 활동은 우리에게 유익한 지침을 주고 있다.

16세기 교회 개혁자였던 갈베도 제네바의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에서 피난 온 궁핍한 사람들의 복지 문제와 씨름하였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 종합구빈원(General Hospital)이었다면,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은 프랑스기금(Bourse Francaise)이었다. 제네바의 종합구빈원은 종교개혁 이전 산재했던 여러 구빈원들을 통합해 설립한 기구로서 구빈원장과 행정관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종합구빈원을 맡은 구빈원장과 행정관들은 매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 아침 6시에 정기적으로 모여, 지난 주간의 일들을 평가하고 다가오는 한 주간의 활동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하였다. 제네바의 구제 사역은 이전과 비교해 볼 때 평신도화, 집중화, 합리화의 특징을 지닌다. 갈뱅이 목회하던 제네바에서처럼 구제사역이 철저하게 평신도에게 맡겨진 곳도 없고, 제네바에서처럼 이전의 모든 구빈원들을 완전히 철폐하고 구제기관을 집중화한 사례도 흔치 않으며, 제네바의 종합구빈원처럼 오랫동안 존속된 구제기관도 드물다. 제네바 종합구빈원은 프랑스 혁명기에 잠시 방해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19세기 말까지 지속되다가 1869년 종합요양원으로 그 이름만 바뀌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제네바 종교개혁이 종교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도 제네바에 진정한 혁명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종합구빈원의 활동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제네바로 온 가난한 피난민들을 위해 1540년대 중반에 설립된 프랑스기금 또한 사회봉사에 대한 갈뱅의 관심을 잘 보여준다. 프랑스기금은 종합구빈원과 달리 사적인 조직으로, 기부자들이 선출한 평신도 집사들이 운영을 맡아 19세기 중반까지 300년 이상 존속하였다. 기금을 운영하는 집사들의 중요한 세 가지 임무는 돈을 모금하고, 분배하고, 가난한 자들을 심방하는 것이었다. 갈뱅은 프랑스기금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정기적으로 기부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기금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였다. 1554년 7월 1일에는 프랑스기금을 관리하는 집사들을 선출하기 위한 모임을 갈뱅의 집에서 가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갈뱅은 제네바에서 오늘날의 사회복지 제도를 무색케 할 정도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제활동을 펼쳤다. 이런 구제를 펼친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가난의 운명과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갈뱅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은 모두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와 억압 받는 자들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갈뱅이 자선을 강조하고 자신도 정기적으로 기부를 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사유재산을 없애거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 갈뱅이 강조한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따라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제 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해야 한다. 교인들은 거름과 같은 존재이다. 거름이 한 곳에 묻혀 있거나 하면 냄새만 나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로 무장한 착취적 신자본주의의 논리가  
 양극화를 세계화시키려고 하는 이때에 성서의 사랑과 정의의 법칙에 입각하여  
 물질의 소통을 통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는"(고후 8:15)  
 공평한 세상을 이루고자 했던 갈뱅의 이상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그러나 거름을 널리 퍼고 뿌려주면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모이는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성장했으니 흩어지는 교회의 성숙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이다. 교회가 터 잡고 있는 지역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구제와 복지 사역에 대한 성도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복지 사역이 일회성이나 단기간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한 교역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회 간에, 총회와, 지역 자치단체나 시민단체와의 그물망을 형성하고, 평신도 전문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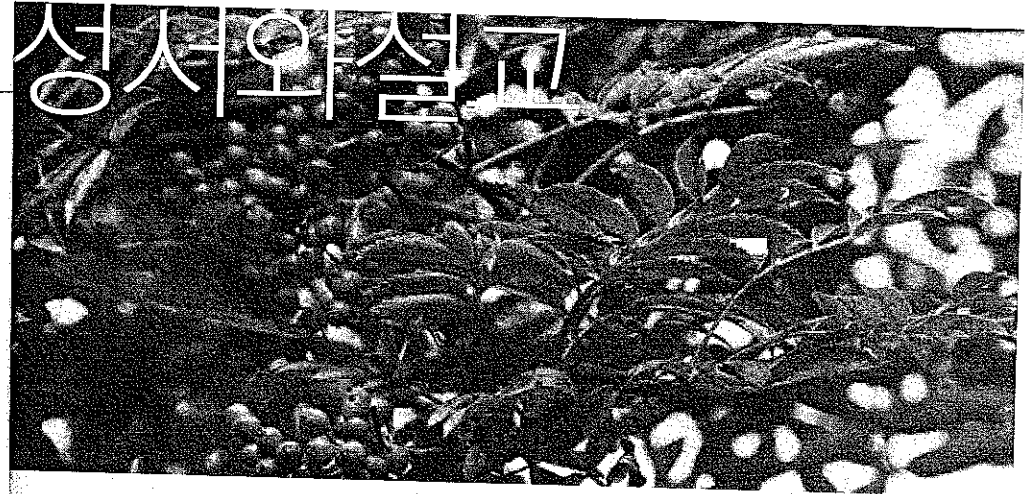
갈뱅은 사회의 제반 문제들을 바라볼 때 언제나 신앙의 관점으로 파악하였다. 갈뱅에게 있어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문제들은 신앙과 경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신학과 윤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갈뱅은 분명 사회학자나 경제학자가 아니라 신학자요 목회자였다. 그렇지만 그의 사상과 영향력은 교회를 넘어서 사회 전체로 확장되었다. 다시 말해 갈뱅의 개혁 사상은 이 땅 위의 인간의 삶에 대한 통전적 개혁이었다. 그것은 개인들의 영적 실존과 사회적 삶 모두를 포괄하는 개혁이었다. 그래서 비엘레(Andre Bieler)는 갈뱅의 사상을 "사회적 휴머니즘"이라고 규정했다. 그레함(W. Fred Graham)도 갈뱅의 사상은 신학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구현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교적 세속주의"라

고 평가하였다. 역사의 방향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칼뱅은 분명 역사에 매우 깊은 흔적을 남겼고, 역사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었다.

성서가 가르치는 사랑과 정의의 법칙은 보편적이고, 따라서 거기에 기반을 둔 칼뱅 사상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있다. 다만 유념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한국은 칼뱅의 16세기 제네바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칼뱅의 사상을 오늘날 그대로 복사하여 가져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세상은 달라졌고, 칼뱅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오늘날 전개되고 있다. 이제 자본주의도 세계화를 말하고 신자유주의의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다. 성서의 보편적 가르침을 21세기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고 씨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그리스도인은 가능한 한 현실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에 가까운 질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회는 복음의 정신에 따라 계속 개혁되어야 하고, 동시에 현재의 사회·경제·정치·문화의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비판하고 성서적 진리에 입각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충격을 주어야만 한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로 무장한 착취적 신자본주의의 논리가 양극화를 세계화시키려고 하는 이때에 성서의 사랑과 정의의 법칙에 입각하여 물질의 소통을 통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는”(고후 8:15) 공평한 세상을 이루고자 했던 칼뱅의 이상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개인의 관계에서든 국가의 관계에서든 어느 한쪽이 불행한 한 세상은 결코 행복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마음도 기쁠 수가 없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돈이 우상이 되는 천민자본주의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대안적 가능성을 보여줄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질서에 대해 새로운 모범을 제시하는 “대안적 공동체”(an alternative community)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정승같이’ 떨어져서 ‘정승같이’ 사용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도 교회만이 희망이다. **박경수**

박경수 | 교수는 서울대 서양사학과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를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교(Th.M.), 클레어몬트 대학원(Ph.D.)에서 공부했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종교개혁사 전공)이다.



70	곽노순	사람교육
84	왕대일	'있음'은 '됨'에서만 드러납니다
96	권연경	참을 수 없는 율법의 연약함
108	유진 피터슨	로마서